

## 이낙연, 텃밭 광주서 당권 레이스 출발...“불꽃처럼 일하겠다”

### 민주당 전당대회 본격 시동

180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날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이낙연 의원은 21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민주당 텃밭인 광주를 찾아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인생의 출발점인 고향에 오랜만에 왔다”면서 “사·도민들의 저를 향한 기대를 잘 알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이슈가 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명분 아래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등 강원 폐광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태백시청 소회실에서 열린 지역 현안 간담회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있어 모두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태백시는

### 5·18묘지 참배 ... “행정수도 이전 여야 협의·균형발전 노력”

### 김부겸 전 의원 강원서 민심잡기 ... 박주민 출마선언 ‘3파전’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 임기가 7개월로, 짧다면 짧은 만큼 불꽃처럼 일하겠다”고 당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인생의 출발점인 고향에 오랜만에 왔다”면서 “사·도민들의 저를 향한 기대를 잘 알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이슈가 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명분 아래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등 강원 폐광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태백시청 소회실에서 열린 지역 현안 간담회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있어 모두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태백시는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 태백은 산업화의 성지”라는 슬로건으로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등 탄광 산업역사의 재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태백시 방문을 마친 그는 이날 오후 삼척시를 방문해 김양호 삼척시장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삼척시 원덕읍 신남마을의 태풍 피해 복구사업 현장을 찾았다. 김 전 의원은 앞서 정선군을 찾아 최승준 정선군수와 정선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고위원 경선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최고위원 도전에 나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후보 등록 후 광주를 찾아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지방자치의 불꽃을 피워내겠다”고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유일한 지역구 국회 의원인 양향자 의원이 이날 출사표를 던졌다. 양 의원은 “당원들이 공직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는 시스템 공천 정당에서 주요 정책까지 직접 디자인하는 시스템 정책 정당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권열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 국립묘지 참배 21일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지지자들이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군공항 이전 ‘초대형 빅딜’로 물꼬 트나

### 최근 광주에서 시장·지사·강기정 수석 등 6차 회동 4500억 지원+의대·공항공사 유치 등 인센티브 논의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초대형 ‘빅딜’이 부상하면서 지역 민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초대형 빅딜이 합의된다면 전국 최초로 군 공항 이전의 물꼬를 트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갑석 광주시장위원장,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김산 무안군수 등 6명은 광

주 서구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광주·전남의 광역단체장과 시도당 위원장, 청와대 수석, 이전 대상 후보지 기초 단체장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동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 단순한 기부 대안여 방식에서 벗어난 패키지 빅딜 방안을 제시했다. 즉, 광주 군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된다면 기존의 4500억 원 규모

의 지원 외에 의대 및 병원 유치, 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이전, 송배전로 신설을 포함한 서남해안 풍력단지 배후시설 조성, ‘RE 100(Renewable Energy 100)’ 산단 유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와 전남이 군공항 이전 조건을 합의, 청와대와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 지역의 미래를 상생으로 견인하자라는 것이다. 특히, 강 수석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단체간의 대상생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6차 회동에서 구체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군공항 이전의 방안이 논의됐다는 자체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또 군

공항 이전의 패키지 빅딜 제안이 논의된 만큼 이해 당사자인 전남도와 무안군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 난 뒤, 추후 6차 회동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과 무안군이 소위 패키지 빅딜 방안을 놓고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경우, 군공항 이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군공항 이전의 패키지 빅딜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의 역량을 총결집, 이번 기회에 군공항 이전의 물꼬를 뜨고 광주·전남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광복절 3일 연휴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115일)가 작년(117일)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시공휴일 확정과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며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코로나를) 이겨내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코로나19로 문 닫는 시골 영화관 ▶6면  
광주FC 전용구장 시대 열렸다 ▶18면

광주 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1주년...청년작가 14인전 ▶16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마스크 착용 생활화 합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착용, 선택이 아닌 필수!

- 01 나 자신부터! 마스크는 꼭 쓰고 외출하기
- 02 서로서로 마스크를 챙겨 주는 우리가 되기
- 03 두명 이상 모일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04 하루 세번 (아침·점심·저녁) 식사 시에만 마스크 벗기

광주광역시 GWANGJU CITY